

김하성, 20-20 클럽 가입 넘본다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2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그런데 발 빠른 김하성이기에 바라볼 수 있는 꿈이 하나 있다.

바로 메이저리그 아시아 출신 내야수 최초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김하성은 전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펼쳐진 신시내티 레즈와 2023 메이저리그(MLB) 원정경기에서 1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해 올 시즌 10호 홈런을 기록했다. 이로써 김하성은 지난해에 이어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김하성은 올 시즌 아직 팀이 162경기 중 84경기밖에 소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10홈런-13도루의 성적을 기



▲ 김하성이 홈런을 친 후 담장을 넘어가는 공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News1

록 중이다. 산술적으로 현재와 같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올 시즌 홈런은 '19.3개', 도루는 '25개'를 달성할 수 있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건 최희섭(은퇴), 추신수(SSG 랜더스, 200), 강정호(은퇴), 최지만(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김하성 등 모두 5명이다.

코리안 메이저리거로 2시즌 연속 '10-10 클럽' 가입 역시 추신수에 이어 김하성이 두 번째다.

김하성은 이제 메이저리그 아시아 출신 내야수 최초 20-20클럽 가입을 바라본다. 그동안 아시아 출신 선수로 20-20 클럽에 가입했던 선수는 추신수(41·SSG 랜더스)와 오타니 쇼헤이(29·LA 에인절스) 등 2명에 불과하다.

미셸 위 "떠날 때를 아는 것은 어려워"



▲ 왼쪽부터 미셸 위 웨스트, 그의 딸과 남편 조니 웨스트. 사진=instagram(michelliewie)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5승을 거둔 한국계 미셸 위 웨스트(33)가 20년에 가까운 선수 생활을 접고 은퇴를 선언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웨스트는 전날 게재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현역 생활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개막한 US여자오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LPGA 투어에 참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위 웨스트는 13세의 나이에 LPGA 컵을 통과한 '골프 신동'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15세 때 프로로 전향해 US여자오픈을 포함해 LPGA투어에서 5차례 우승했지만, 고질적인 부상 탓에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2019년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임원인 조니 웨스트와 결혼한 그는 이듬해 딸을 출산한 뒤 사실상 투어를 떠났었지만, 2021년 LPGA에 복귀했다. 그러나 그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결국 은퇴를 선택했다.

위 웨스트는 "내가 충분히 우승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러겠지만 좀 더 결과를 냈으면 좋았을 것이다"면서 "그만 둘 때를 아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위 웨스트는 은퇴 후에도 골프와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의 주최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

"페데러, 라켓 들지 않고도 관중을 열광하게"

웬블던이 남자 테니스의 '전설'이자 이 대회 최다 우승자인 로저 페더러(은퇴·스위스)에게 경의를 표했다.

5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한 페더러는 전날, 웬블던 이틀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영국 웬블던의 올잉글랜드 클럽 센터코र्ट에 나타났다.

엘레나 리바키나(카자흐스탄)와 셸비 로저스의 센터코र्ट 첫 경기에 앞서 페더러를 장내 아나운서가 소개하자 박수가 터졌다. 페더러가 로열박스에 서서 여러 차례 감사의 몸짓을 했으나, 박수는 약 1분 30초 동안이나 이어졌다.

페더러의 활약을 담은 짧은 영상도 전광판을 통해 소개됐다. AP는 "페더러는 라켓을 들지 않고도 관중을 열



▲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팬들의 환대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사진=AFPBBNews

광하게 했다."고 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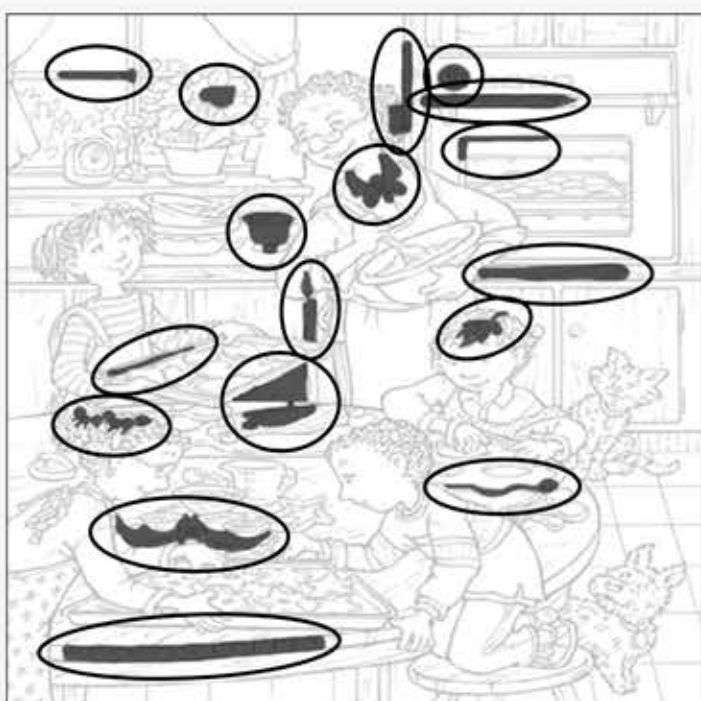
페더러는 아내 미르카와 케이트 미들턴(41) 영국 왕세자빈 사이에 앉아 경기를 관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부상으로 은퇴, 웬블던에서 은퇴 경기를 치르지 못한 페더러를 위해 주최 측이 마련한 자리였다.

페더러는 2000년대 압도적인 성적을 내 '테니스 황제'로 불렸다. 통산 8차례(2003-07, 09, 12, 17년) 우승해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 중이다. 메이저 우승에선

20회로 라이벌 조코비치(23회), 라파엘 나달(37·스페인·22회)에 밀리지만, 웬블던에서만만큼은 팬들에게 그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다. 영국 BBC는 이날 페더러를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숫자퍼즐 정답

3	2	6	7	4	1	8	9	5
1	5	8	6	2	9	4	3	7
4	7	9	3	8	5	1	2	6
5	3	1	8	7	6	2	4	9
6	9	2	5	3	4	7	8	1
7	8	4	9	1	2	5	6	3
8	6	5	4	9	7	3	1	2
9	1	3	2	5	8	6	7	4
2	4	7	1	6	3	9	5	8